주일예배 오전(1부, 노량진) 6시 / 오전(2부) 7시 / 오전(3부) 10시 / 오후(4부) 2시 /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2년 11월 20일 (제1176호)

주일예배 1부(오전) 7시 / 2부(오전) 10시 / 3부(오후) 2시 /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붕우컬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추수감사절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신에서 비롯되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선 청교도들. 그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허나 거센 풍랑은 그들을 거침없이 삼켰고, 겨우 생존하여 도착한 신대륙에는 침입자에 맞서려는 원주민과 풍토병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그들은 겨우 감자와 옥수수를 수확하여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다. 편안치는 않았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세계 최대의 국가, 미국을 세우셨다.

내우외환(內憂外患), 대한민국의 현 상태다. 안으로는 이태원 참사요, 밖으로는 북한의 위협적인 미사일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감사는커녕 불안과 원망이 먼저 나올 판이다. 그러나 이럴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해야 한다. 내가 늘 말했듯이 감사는 인생의 항암제요, 방부제요, 성장촉진제이기 때문이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찌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합3:17~18)라고 노래하면, 하나님이 다시 무화과나무를 무성케 하시고,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시며, 밭에 소출이 있게 하시고, 외양간에 소가 꽉 차게 하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을 봐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했던 여러분의 목사를 봐라.

'좋은 옷 못 사줘도 엄마 아빠를 사랑해.', '건강하지 않더라도 당신을 사랑해.'라고 한다면 부모가, 남편이 얼마나 감동하겠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기도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에게 재 대신에 화관을 씌워 주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 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실 것이다(사61:3).

목회 38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다. 그러니 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자.

공든 탑도 계속 공들이지 않으면 무너진다

지난 11월 10일 저녁, 우리 유튜브 방송채널이 해킹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수요예배 영상을 편집하여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계정도용 사실을 확인하였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유사 사례를 검색하여보니 그동안 공중파 방송사 유튜브 채널을 비롯하여 대형 금융회사 등 해킹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었다. 특히 가상화폐와 관련된 해킹세력에 의해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유튜브 계정도용사고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지 알아본 후 즉시 유튜브 본사에 계정도용(해킹) 사실을 신고하고 그들의 복구매뉴얼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였다.

주말이 껴있고, 유튜브 본사가 있는 미국과 시차가 있어 주일 전까지는 재개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우리는 새로운 임시채널을 개설하고 미흡하나마 새로 예배 영상들을 올리기 시작했다. 우리 교회 예배나 집회 영상 등 모든 자료들은 우리 방송국 자체가 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유튜브 방송채널을 개설하며 여기에 10여 년 동안 계속 자료를 올려놓았는데, 이 채널이 막혔고, 그럼에도 채널이 복구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성도들에게 VOD서비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임시로 새로운 채널을 개설하여 최근 영상부터 집중적으로 올린 것이다.

목사님은 "너무 유명해서 악한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한 거다. 그러나 신속히 조치하여 자료들이 안전하다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더 나은, 더 심플한 복음전파 수단이 되도록 연구하자."고 말씀하셨다.

국제해킹조직의 기술이 진화하여 요즘은 해커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AI기술로 무차별 해킹을 시도하고 여기에 걸려들면 채널을 검토하고, 이것이 유용하다 판단되면 해킹을 풀어주는 대가로 막대한 금품을 요구한다고 한다. 목사님 말씀처럼 그런 단계까지 나가지 않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예수중심교회 유튜브 방송채널이 개설된 지도 약 10년이 되었다. 그동안 이 채널을 통해, 특히 코로나 기간을 거치며 가장 큰 수혜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계의 이단시비로 많은 성도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유튜브를 통해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보며 인식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고, 유튜브를 통해 은혜를 받고 있으며, 유튜브를 보고 찾아왔다는 성도들의 발걸음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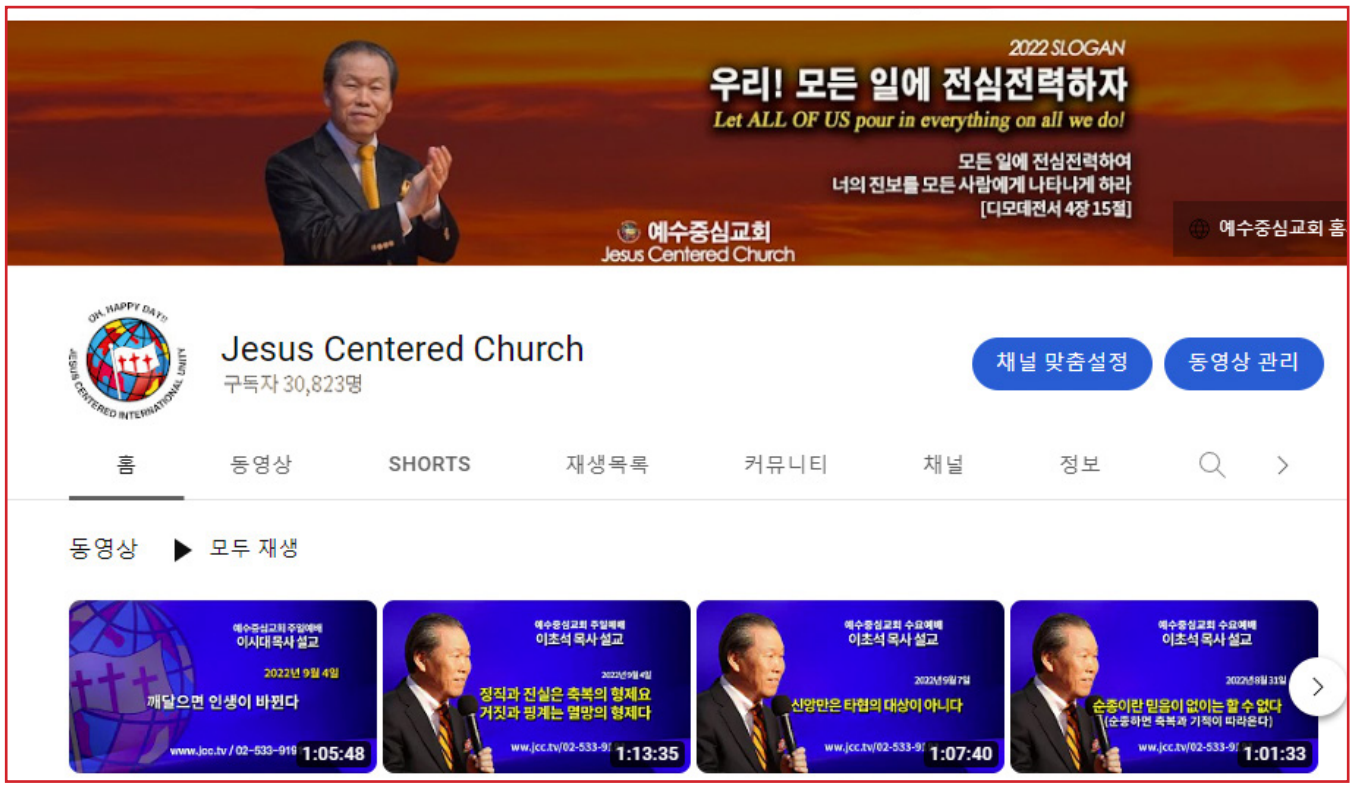
더구나 우리 성도들이 유튜브 설교 영상 및 찬양 영상을 통해 하루하루 생명의 꼴을 먹고, 영적으로 충전하며 신앙생활에 유용한 도움을 받고 있음을 절감하게 되었다. 당장 채널이 정지되고 목사님의 설교를 볼 수 없게 되자 병원에 입원해계신 성도들, 거동이 온전치 못해 현장 예배에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의 불편이 보고되었다. 또한 많은 성도들이 1시간, 2시간 기도 영상을 개인 기도 시간에 활용하고 있었다. 우리가 하는 일의 막중한 책임을 절감하게 되었다.

목사님은 공든 탑도 계속 공들이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번 유튜브 해킹사고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아무리 공들여 세워놓은 공든 탑도 계속 공들여 살피고,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지속적인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이번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성도들에게 더욱 접근이 쉽고 심플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구하며 연구, 분석하기 바란다. 전에도 후에도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지혜가 너희 방송팀에 임하길 기도한다."

이 지면을 빌어 유튜브 예배 영상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또한 채널 변경에 앞서 즉시 해킹사실을 알리고 설명해드리지 못한 점도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사고 발생 이후 많은 염려와 함께 방안을 제안해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기도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JCC TV가 되도록 전심전력하겠습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중심교단 방송 담당 한은택 목사



2022 추계산상집회 11월 28일(월)~12월 1일(목) 문의 : 02. 533. 9191
장소: 장성예루살렘기도원 호텔예약 : 11월 22일(화) 오전10시 (www.jcc.tv)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24:16)

너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세일즈맨은 거절당했을 때부터 뛴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절당했다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절이 오히려 오기와 패기를 낳고, 다시 거절당하지 않는 방법을 구상하기 때문입니다.

넘어졌을 때, 거절당했을 때,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끝이다.' 생각하고 포기합니까? 아니면 '될 때까지 도전하리라'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이 내 삶을 좌우한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찌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잠24:16). 이 말인즉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칠전팔기(七顚八起),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곧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말입니다. 안 넘어지는 게 성공이 아니라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 도전하고, 재도전하는 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마귀도 포기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포기하냐?"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아이가 걸으려면 3,000번 이상 넘어진다고 합니다. 한 번 넘어지고 아프다고, 무섭다고 안 걸으면 평생 못 걷습니다. 살면서 넘어질 수 있지요. 살면서 실패할 수 있고, 낙방할 수 있고. 실연당할 수 있지요. 그렇다고 주저앉습니까? 챔피언도 권투 시합하다 보면 한 방 맞고 다운될 수 있는 겁니다. 다운되었다고 시합에 지는 게 아닙니다. 못 일어나면 K.O로 지지만, 다시 일어나면 시합은 계속되고, 기회가 왔을 때 4전 5기의 홍수환 선수처럼 한 방 날리면 만회할 수 있고, 마침내 이길 수 있습니다. 야구에서 9회 가 되도록 지고 있다고 완전히 진 게임입니까? 심기일전해서 9회 말에 만루홈런 한 방 날리면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포기합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의 이야기가 그야말로 칠전팔기의 성공사례입니다. 어떤 도시의 한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하여 한 재판관에게 자주 찾아가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은 안하무인(眼下無人)으로 사람을 아주 우습게 아는 데다가 하나님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과부는 그 재판관을 매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멸시 천대를 받았겠습니까? 그래도 과부는 매일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 못된 재판관이 그 과부에게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태어나서 당신 같은 여자는 처음 봤다. 징그럽다. 내가 해결해줄 테니 제발 그만 와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는가 하면 이 비유의 첫머리에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눅18:1)이라고 말씀하셨듯이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넘어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넘어지면 일어나 다시 도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도 할까요? 그녀는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와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개로 비유하며 일찌감치 손 털고 가라 하셨습니다(막7:27). 아마도 이쯤 되면 자존심이 상해서 99.9%가 다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도전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막7:28). 그녀의 강한 도전의식을 보신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시며 그녀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그렇습니다. 12년이란 세월이 절대 짧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다 없어지고, 가족들도 포기했지만 낫겠다는 그녀의 의지만은 꺾지 못했습니다. 만일 '이게 내 운명이다, 내 팔자다' 하고 포기했더라면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계속 도전하고 도전하니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막5). 누가복음 11장에 친구에게 떡을 구하는 자의 결말도 재도전이 이룬 쾌거가 아닐까요?

또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키는 평균 이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거리로 나갔지만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당신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키가 작은 걸 어쩌겠어. 그냥 들어가자.' 하고 포기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기필코 정신으로 뽕나무에 올라가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런 그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한 자가 그 과부 하나였겠습니까?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그 여인뿐이었겠습니까? 자존심을 밟힌 자가 수로보니게 여인 하나였겠습니까? 키 작은 사람이 삭개오 하나였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정신이 남달랐기에, 그들의 생각이 '이루고야 말겠다' 했기에 성경에 믿음의 인물로 기록된 것입니다.

언젠가 김정태 장로가 "목사님, 음식이 맛있으려면 원자재가 좋아야 합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싱싱하지 못한 고등어로는 맛있는 고등어조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원자재가 뭡니까? 바로 생각과 말입니다. 생각과 말이 좋아야 맛난 인생이 됩니다. 부정의 생각으론 맛난 인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마7:18).

요즘 저는 생각할 것이 많을 때면 그림을 그리곤 하는데, 그림은 생각대로 나옵니다. 제가 강렬하게 그리겠다 생각하니까 빨강 파랑 등 원색을 택하게 됩니다. 가나안을 정탐하러 간 12명, 그들은 같은 상황을 보고 그림을 그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똑같은 크레파스 한 통씩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0명은 어둡고 칙칙한 색을 골라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밝은색을 골라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것은 다 각자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그들의 생각대로 결과가 나왔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렘6:19).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의 산실이요, 하나는 부정의 산실입니다. 긍정의 산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부정의 산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방에 자주 들어가십니까? 어떤 방을 자주 이용하십니까? 저는 아예 부정의 산실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완전 초긍정으로 살았기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라도 말과 생각을 리모델링 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지저분하고 낡은 집도 리모델링 하니까 멋지게 됩디다. 생각이 리모델링 되면 말이 리모델링 되고, 그것이 삶을 리모델링 합니다. 멋진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히10:38~39)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잡고 생각을 바꿉시다.

과테말라 집회를 마치고 귀국 길에 미국의 애틀랜타를 경유했습니다. 시간을 잠시 내어 애틀랜타의 한 골프하우스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놓인 조각상이 마음에 들어 팔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라고 제자 목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전시용 조각품을 누가 팔겠어?'라면서 안 팔 거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제가 가서 계속 물어보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물어봤는데 주인이 안 판다고 했습니다. 그가 와서 "거봐요, 안 판다잖아요." 하기에 "네 생각에 이미 안 판다고 했으니 팔 리가 없지."라고 말해줬습니다. 저는 다음날 또 그곳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왜 가냐고 해서 "어제는 안 팔았어도 오늘은 팔 거야."라고 했더니 다들 안 파는데 괜한 고생한다고 한마디씩 했습니다.

다음날 그곳에 가서 그 제자 목사를 통해 제가 누구인지 유튜브를 보여주면서 팔 것인지 다시 물어보라 했는데, 어제는 안 된다던 주인이 판다는 게 아닙니까. 그럼요, 어제 안 되던 것도 오늘은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말을 말이 인생을 바꾼다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하지 않은 겁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면서 2천 번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연구하여 마침내 그것을 발명해냈고, 링컨도 많은 실패를 인내하여 마침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포기는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는 좀이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감사하는 삶

복이 복인 줄 깨닫지 못하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 초창기 때 성도들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을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깨닫고 나니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회복하고 기쁨으로 사역하다 보니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끊임없이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감사는 행복한 삶의 촉매제이며, 우리 삶의 방부제입니다.

우리가 염려 걱정하고 원망 불평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속 썩이는 자녀들도, 불경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업도, 아웅다웅하는 배우자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시면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면 됩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미련한 사람은 없는 것과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따뜻한 쌀밥에 돌이 몇 개 섞여 있다고 화를 내며 밥상을 엎어버린다면 배고픔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돌을 골라내고 맛있게 먹는 자만이 포만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에만 골몰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감사의 제목들을 헤아리는 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이며 인생의 소중한 지혜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지만 원망과 불평은 축복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는 자물쇠요,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밝은 천국을 주신다."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처럼 작은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만들어 냅니다. 고난마저도 지나고 보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체험한 자들은 범사에 감사하며 소망의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의 제목들이 셀 수 없이 많은데도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추수감사절에만 감사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1년 365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넘어져도 감사, 자빠져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1년 365일 범사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천성을 향해 달려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시100:4).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교단소식 ::

'너, 교회 다닌다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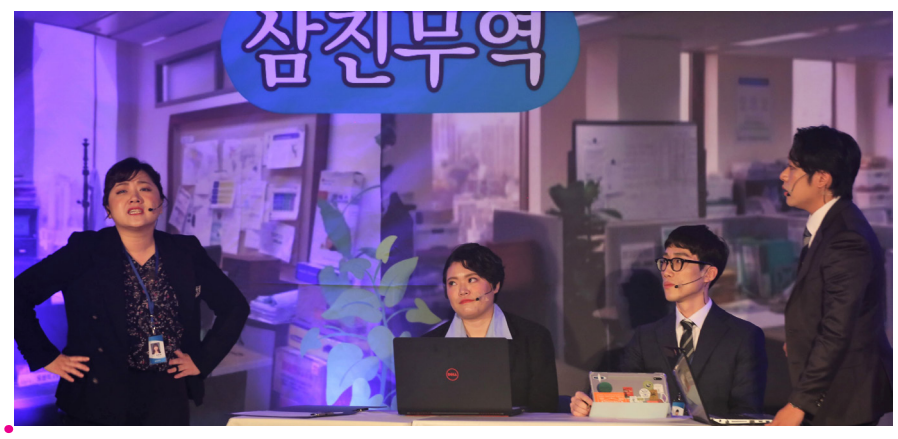
지난 12일, 서울 청년부에서는 '교회 다닌다며?'라는 제목의 드라마예배를 드렸다.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청년들의 직장생활기를 리얼하게 그린 이 극은 주안에 있으면서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하는 우리 크리스천 젊은이들의 모습을 담아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다.

극의 내용은 이렇다. 한 무역회사에 다니는 '문대리(주인공)'는 크리스천이다. 회사의 특성상 주일에 출근을 요구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주일성수를 했더니 직장 상사에게 밉보여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또한 술을 먹지 않거나 회식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단 이유로 고의적인 공적 빼앗기가 발생하며 사내에서 왕따를 당하게 된다. 이때, 문대리가 듣는 말인 '교회 다닌다며?'는 조롱과 비아냥이기도 하고 힐난과 비판이 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극이었다.

서울 청년부 담당 신현명 목사는 이날 설교에서 "명품 가방 브랜드 MCM 김성주 회장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녀는 '한국에서 사업을 잘하려면 술을 잘 마시고, 뽕도 잘 치고, 봉투도 잘 돌려야 해.'라는 업계의 관행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단 생각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업하였더니 CNN에서 아시아를 이끌어가는 여성 리더에 뽑힐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 예수중심 청년들도 시대에 편승하기보다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며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복이 있는 자들(시33:12)이 됩시다."라고 말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는 '정직하고 분명하면 떳떳하고 당당하다'라고 자주 말씀하시며, 항상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마10)고 강조하신다. 우리, 생각과 사고는 유연하되 죄악과 유혹 앞에 단호한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송현혜 생도



:: To Be Succeeded::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삶

"엄마! 하나님이 진짜 우리 기도를 들으셨어요!" 학교를 마친 아들이 몹시 신이 나서 뛰어나왔다. 자초지종은 이렇다.

이사 오기 전, 아이가 전학 갈 학교에 축구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알아보니 아이가 원하는 축구부는 없었다. 아이에게 "엄마가 알아보니 지금은 축구부가 없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그 학교에 축구부가 생기게 해주세요!"라고 말해줬다. 전학을 와보니 역시나 축구에 관련된 활동은 전혀 없었고, 격주로 하는 동아리 활동도 이미 다 배정이 된 상태라 아이는 선택권이 없이 미술부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아이가 동아리 활동을 하는 첫날 아침, 담임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놀라운 얘기를 하셨다. "오늘부로 축구 동아리가 새롭게 생겼어요.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손드세요." 오매불망 기도하며 기다렸던 소식에 아들은 당연히 손을 번쩍 들었고, 많은 희망자 중 세 명에 뽑혀 기도한 대로 축구부에 들어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담당 체육 선생님께서 축구를 좋아하시는 덕분에 체육 시간에도 반 친구들과 신나게 축구를 즐기며 운동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교회 체육대회에서도 이어졌다. 당일이 가까울수록 날씨가 심상치 않더니 전날 밤에도 천둥 번개까지 동반하며 비가 왔다. 예배 때 모두가 합심기도까지 했지만 결국 당일 아침에도 비는 그치지 않았고, 천막을 치고 물품을 세팅하는 시간에 비는 오히려 더 세차게 내리는 듯했다. 비를 맞으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시던 목사님은 성도님들과 합심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마음을 합하여 간절히 기도하던 그 시간, 비가 그치고 먹구름 사이로 햇살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는 모두 기쁜 마음으로 체육대회를 즐길 수 있었다.

우리 목사님은 "가장 위대한 자는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다!"라고 지금까지 외쳐오신다. '이런 것까지 굳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쩨쩨한 분이 아니라 세밀하시고 자상하신 분이라고 가르치신다. 안된다고 원망 낙담하기 전에, 할 수 없다는 부정에 지지 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작은 일도 진실로 기도하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자.

이국진 사모

:: 생명의 말씀 ::

팔자를 넘어선 삶

우연히 부모님을 통해서 이 삶을 시작했다. 우연히 그 동네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정말 우연히 좋은 가정에서 교육받을 수 있었다. 가고 싶은 대학엔 못 가고 우연히 다른 대학에 가게 됐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연히 좋은 직장에 지원해 근무하게 됐고, 우연히 전학해 온 고등학교 친구의 동생을 알게 되어 결혼했다. 우연히 회사를 하게 되어 운영하다가 우연히 예상 못한 불행을 만나 회사를 접게 되어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지금은 목사가 되었다.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아도 필연이다. 우연의 연속은 필연이다.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사주팔자와 점성술은 태어난 연월일시에 따라 운명을 점친다. 예정된 삶, 하나님의 진리로 만들어진 삼라만상의 비밀을 풀기 위한 인간의 노력들이 주역 등 역학과 점성술 등으로 결집되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 이 모든 노력들이 하나님의 예정을 알기 위한 인간들의 처절한 몸부림이다.

하나님의 예정설과 개인의 자유의지는 서로 상충하는 난제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해 놓은 예정은 인간의 의지로 완성된다. 그 예정을 이루기 위해 자유의지를 지닌 나의 노력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된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머무르는 것이 팔자를 넘어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요점이다.

하나님의 예정은 변치 않되 그 뜻을 이루는 계획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내 자유의지로 내 팔자를 넘어서는 통로가 된다. 에스더는 자유의지로 주님의 편에 섰다(에4:13~16).

미국의 남북전쟁 중에 양측 리더 모두 크리스천이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인가 묻자 링컨 대통령은 '나는 항상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 한다.'고 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죽음까지도 불사한 에스더와 링컨의 지혜에 감탄한다. 내가 하나님 편이면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 될 수가 없다(시118:5~6).

에스더와 링컨은 위기 앞에서 죽음도 불사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예정 속으로 들어갔다. 그것이 자유의지이다.

하나님의 선한 예정과 계획에 내가 순응하는 것, 그것이 팔자를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비밀이다.

이광주 목사

:: 성경에서 배운다 ::

예수를 섬기는 자들

한 신문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어느 간호대학 기말시험에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우리 강의실을 청소해주시는 아주머니의 이름을 적으시오.' 세상에~, 청소해주시는 아주머니와 대화 한번 해본 적도 없는데 이름을 알고 있냐고 물으니, 당황한 학생들이 조심스레 교수님께 항의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은 '간호의 기본은 사람을 향한 관심'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차별 없이 섬기는 마음이 비단 간호에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준비, 섬길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지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탕자이며, 우리가 돌아봐야 할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간호대학의 일화를 보며 한 가정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청년부 시절 대방동에 교육관이 있을 당시 경비아저씨를 알뜰살뜰 챙겨 드리는 젊은 가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경비아저씨가 비록 교회에 나오시지는 않아도 이 건물을 관리해주시는 분이니 자신이 받은 간식도 챙겨 드리고, 아프신 곳은 없으신지 묻기도 하고, 복음도 전한 것이지요. 그래서인지 경비아저씨도 그 가정만 보면 무척 반기며 고마워하시는 마음이 한 눈에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께서 재림 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준비한 나라를 차지하게 될 사람들을 분류하십니다. 도대체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기에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될까요?

바로 지극히 작은 자, 즉 병든 자, 가난한 자, 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돌보고 섬겼다는 이유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오늘도 지극히 초라한 사람 하나로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 보내는 작은 위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소소한 물질, 옥에 갇힌 자들이 춥지 않게 보내길 바라는 긍휼함을 잊지 않으시겠다고, 당신의 나라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될 뿐 축복은 안 받아도 된다고요?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할 것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영벌'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영생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런 작은 예수님을 섬겨야만 한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작은 예수는 누구입니까?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마음을 쓰며 섬길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룩한 성도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하인명 집사

:: 신앙에세이::

소중한 당신

누군가 내게 물었다. 부모를 잃은 슬픔과 자식을 잃은 슬픔 중 어느 것이 더 클지. 나는 여러 강연에서 들었던 말들을 빌려 대답했다. 부모는 아이의 우주이기 때문에 자신의 우주를 잃은 것과 같고, 성장했을 때에도 자신의 삶을 지탱해 온 큰 기둥이, 큰 보호막이 사라진 것 같은 슬픔이라고. 그리고 자식을 잃은 슬픔은 자신의 모든 삶이 무너져내린 것과 같아 그 슬픔에서 헤어 나오기도, 앞으로의 삶을 살아내기도 어려운 슬픔이라고. 어느 기사에서도 보았는데 사람이 겪는 스트레스 수준을 순위별로 나열했더니, 1위가 자녀의 사망, 2위가 배우자의 사망, 3위가 부모의 사망이기도 했다. 이에 자녀가 있는 나로서도 후자가 클 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그 큰 슬픔도 해가 빛을 잃어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지진이 일어나며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것으로 표현된 것 같다. 물론 부활하실 것을 아셨겠지만, 자신의 독생자를 사망으로 내어주는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보장이 있더라도 자기 자녀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고통을 겪을 수 있는 부모가 과연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을 견디셨다. 그 정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귀하고 소중해서. 설령 현재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신앙과 상관없이 당신은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다. 이에 그 귀하고 소중한 영혼을 천국으로 이끄는 것 또한 믿는 자들의 사명인 것이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별 볼 일 없는 삶이라 느꼈을지라도, 당신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매우 소중하고, 열심히 살아온 당신의 삶 또한 참 소중하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5:8).

박찬영 집사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강서구 화곡동) 문의: 02-533-9191

:: 빛이 되신 주 ::

철저하게 준비하라

목사님은 늘 '철저하게 준비하라, 준비하지 않은 인생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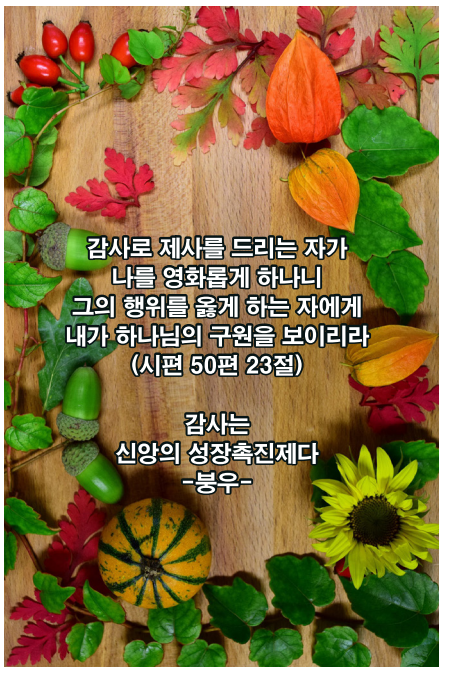
제가 지금 이렇게 미국에서 7년간의 트럼펫 연주학 박사학위 취득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도 미리미리 철저한 준비와 계획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국내 명문 음대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로만 구성이 된 시각장애인 음대를 나왔습니다. 그 음대는 2년제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각장애인 전용 음대에서 2년간 열심히 공부하면서 매일 같이 오후 시간마다 제가 쓴 편지를 가지고 택시를 타고 문화체육관광부 청사를 찾아갔습니다. 왜냐고요? 안내데스크 직원분에게 제 편지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에게 꼭 좀 전하여 달라고 부탁드리기 위함입니다.

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에게 쓴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문화체육부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살고 있으며, 현재 시각장애인 전문 음대 2년제 과정을 밟고 있는 스무 살 윤영광 학생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장관님께 편지를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장관님의 마음도 감화 감동시키실 것을 믿고 이 편지를 씁니다. 장관님, 저는 태어날 때 미숙아로 태어나서 3개월간 인큐베이터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를 관리 담당하시는 간호사 선생님의 실수로 시각장애가 생겼습니다. 눈에 안대를 채운 상태에서 인큐베이터로 들어가야 하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제 눈에 안대로 채우지 않는 실수를 하셔서 저는 두 눈이 다 빛에 의해 시신경과 망막이 타서 다 녹아내리는 의료사고를 당해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장관님, 그러나 저는 저를 이렇게 만드신 간호사 선생님을 단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덕분에 예수를 믿게 되었거든요. 장관님,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현재 저는 시각장애인 전문 음대에서 트럼펫을 전공하고 있으며 성악을 부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비장애인들이 가는 일반 음대 대학원 트럼펫 연주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해외 유학의 길을 통해 취득하길 원합니다. 장관님, 저의 집안 형편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부모님 모두가 다 일용직으로 일하고 계셔서 저를 뒷바라지하실 형편이 전혀 안 됩니다. 장관님, 저는 장관님께 이 편지를 보내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200일간 작정기도를 하였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200일간의 작정기도 끝에 장관님께 편지를 써서 보내라는 감동을 주셨고, 이를 실행에 옮기면 유학을 통하여 트럼펫 연주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장관님, 저를 증빙할 백 다운 백, 서류다운 서류는 오직 예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제 담보시며, 하나님이 저의 백이시며, 하나님이 저의 증빙 서류이십니다. 장관님, 제가 해외 유학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음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제가 믿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저를 도와주신 것이 최고의 선택, 최고의 보람으로 길이길이 남을 수 있도록 증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장관님과 장관님의 가정과 문화체육관광부에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제가 그 당시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 윤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 뉴욕에서 받는 교육이며, 학비는 물론 각종 생활비까지 다 대한민국 정부 부서인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제가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준비하는 삶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기회는 준비한 자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윤영광